

영광,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지원

구례군,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 접수

주민들 직접 제안...134억원 규모 지원

1가구당 151만원 전기요금 연 60만원 절감

보조율 70% 상향 조정...경제적 부담 낮춰

영광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주택 설치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군민이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설치비의 55%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보조율을 70%로 상향하여 설치기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했다.

전설비 설치 시 설치비용은 503만원으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352만 원이 지원되므로 주택 소유자는 151만 원만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하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인 가구의 경우 연간 6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greenhome.kemc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9월 4일까지이다.

사업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 후 군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37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영광군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69가구에 7억6천2백만 원

을 지원해왔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공모란에 게시된 공모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구례군은 구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례군은 국토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을 통해 근대건축물인 구례읍사무소를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경관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1인 창업공간인 세포마켓과 다문화점포 등 시대에 대응하는 카멜레톤을 만든다. 인근 주거지역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구례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스마트 안전거리도 조성한다. 사업 규모는 134억 원이다.

이번 주민공모사업은 구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공모 분야는 도시재생지역 내 생활환경개선 및 경제·복지·주거·문화·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례군에 생활기반이 있으면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제반서류를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며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와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 061-781-23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범씨 종자 전염병 온탕으로 해결



본격적인 못자리 설치를 앞두고 곡성군이 다음달 20일까지 종자

전염병 방제를 위한 '범씨 온탕소독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농업기술센터와 10개 면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온탕소독기를 설치하고 농업인들에게 범씨를 온탕소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종자로 전염되는 벼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과 벼잎선충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자소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일반 관행 재배의 범씨 소독법의 경우 같은 계통의 화학 약제를 반복 사용하면 병균의 내성이 증가하므로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범씨 온탕소독은 내성을 높이지 않고도 키다리병을 97% 이상 방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씨 온탕소독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마른 종자를 65℃ 물에 7분 간(또는 60℃ 물에 10분) 담근 후 찬물에 20~30분 간 충분히 식

혀 소독하는 친환경 종자소독법이다. 보통 친환경재배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일반재배 농가에서도 약제처리 전 온탕소독을 실시하면 방제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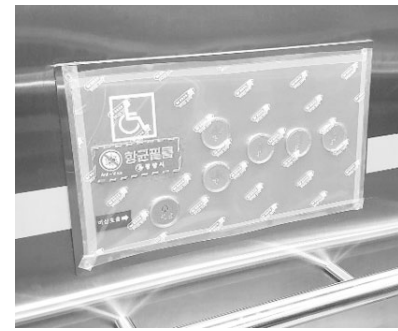
바쁜 농번기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061-360-7352)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온탕 소독장 이용시간을 미리 문의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다. 특히 소독할 범씨를 10kg이상의 망에 담아가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온탕소독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온탕소독법은 종자량의 10~20배의 물을 60℃로 끓여 10분 간 물 온도를 유지하면서 범씨망 안쪽까지 고르게 온탕 소독해야 한다. 온탕소독장이 고령 농업인, 소규모 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광양시, 모든 승강기에 항균필름 부착

박테리아·바이러스 등 병원체 감염 억제 효과 있어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지역 내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승강기 1,500여 대에 항균필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되는 항균필름은 바이러스와 감염균 서식을 어렵게

하는 구리(Cu) 성분이 함유되어 손끝 교차감염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간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승강기 내부착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 청사를 비롯한 지역 내 공공시설의 승강기에 항균필름 부착을 완료했으며, 공동주택과 일반 건물 등은 오는 24일까지 배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생활방역이 중요한 만큼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천연염색재, 로컬크래프트 창업 교육

(재)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주관한 '2020년 지역특화형 동행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 사업은

'천연염색 연계 로컬크래프트 창업교육사업'으로 전라남도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여 천연염색 및 공예 기술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슬로건 공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원 중심으로 저류지 공원 등 도심 전역에서 개최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어(슬로건)를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제어 공모에는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의 위상을 높이고, 박람회 개최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12자 내외의 한글 문구와 함께 영문표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전자우편(E-mail)이나 모바일을 통해 1인당 하나의 주제어를 제출할 수 있다.

평가는 주제적합성(40점), 창의성(20점), 지속가능성(20점), 활용가능성(20점)이며, 총 3차에 걸쳐 심사하게 된다.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3차 주제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6개의 입상작을 최종 결정하며, 결과에는 6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당선작 중 최우수상(1명)은 100만원, 우수상(1명) 50만원, 장려상(4명) 각

25만원씩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순천만국제정원원에서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국제정원박람회는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박람회로 순천의 자연요소를 접, 선, 면으로 연결해 도심 전역을 생태적으로 쇠신하고 정원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